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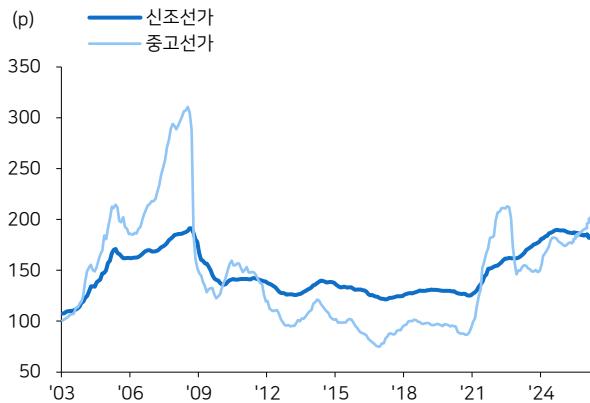


2026. 3. 27 (금)

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kiyeon.bae@meritz.co.kr

>>>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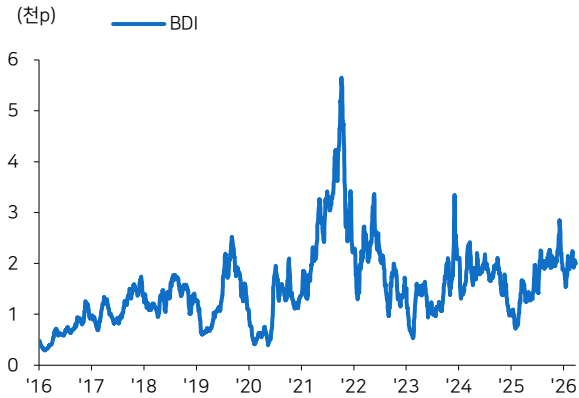
신조선가 182.1p (+0.1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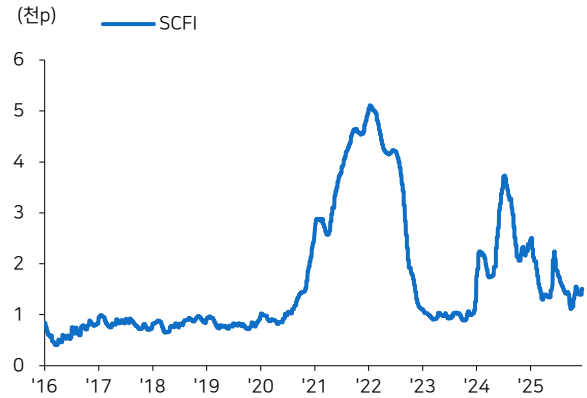
중국 내수 후판가격 489.0달러 (+2.0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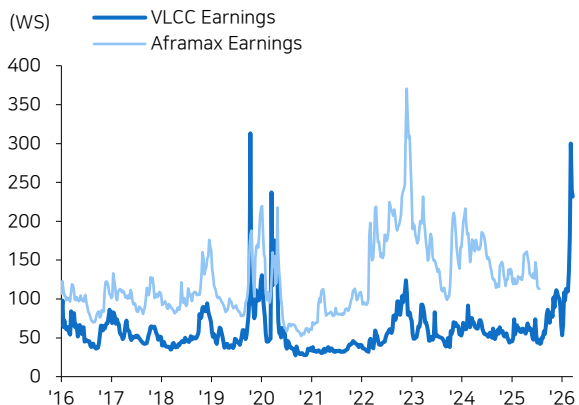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2,001.0p (+12.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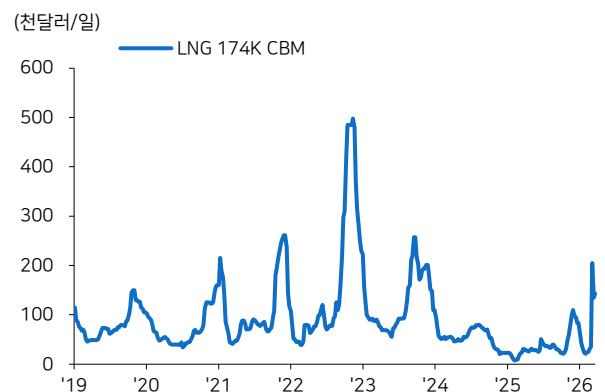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1,706.5p (-3.8p WoW)



VLCC Spot Rate 231.6WS (-8.1p WoW)



LNG Spot 운임 142.5천달러 (+7.5p WoW)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U.S. Navy Unveils Unmanned Centerpiece of Golden Fleet Initiative (NavalNews)

<https://zrr.kr/LMMSMf>

미 해군이 Golden Fleet 이니셔티브 하에 차세대 중형 무인 수상정 MUSV 제품군을 공개했으며, 전통적인 프로토타입 단계를 생략하고 생산 준비가 완료된 시스템을 즉시 도입하여 전력화 속도를 극대화하는 신속 획득 체계를 구축했다고 보도됨. 해당 함정은 최소 2개의 40피트 컨테이너형 페이로드를 나란히 적재할 수 있는 모듈형 설계를 채택하여 센서나 미사일 시스템 등 다양한 장비를 임무에 맞춰 자유롭게 교체 운용할 수 있으며, 기존 MASC 사업의 한계를 넘어 더욱 확장된 다목적 작전 수행 능력을 갖춘다고 전해짐. John Phelan 미 해군 장관은 민간 부문의 첨단 기술력을 빠르게 흡수하여 함대의 자율 작전 능력을 가속화할 방침이며, 올해 말까지 모든 해상 테스트와 검증을 완료하고 2027 회계연도까지 최대 10척의 MUSV를 실전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알려짐.

'잠수함 수주전' 한화오션, 加방산업체와 맞손...현지협력 가속 (연합뉴스)

<https://zrr.kr/qdQ6dj>

한화오션이 최대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를 위해 현지 방산업체 Curtiss-Wright와 예인 소나 운용시스템(TAHS) 공급에 관한 장기 협력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보도됨. 이번 협약에 따라 한화오션이 사업권을 따낼 경우 Curtiss-Wright의 캐나다 온타리오 공장에서 제작된 핵심 탐지 장비가 '장보고-III 배치-II' 잠수함에 탑재될 예정이며, 이는 캐나다 경제 기여도를 중시하는 발주처의 평가 기준을 충족하려는 전략적 행보라고 전해짐. 이번 사업에서 한화오션은 독일의 TKMS와 치열하게 경쟁 중이며, 이달 초 제안서 제출을 마친 뒤 오는 6월 말로 예정된 최종 사업자 발표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알려짐.

베트남 간 정기선 HD 현대 회장 "해답은 현장에" (지디넷코리아)

<https://zrr.kr/WaXJcD>

정기선 HD현대 회장이 취임 후 다섯 번째 현장 행보로 베트남 사업장인 HD현대베트남조선과 HD현대에코비나를 방문하여 공정 및 안전 시설을 점검했다고 보도됨. 정 회장은 24일 칸호아성 소재 현대베트남조선을 찾아 석유화학제품운반선(PC선) 건조 공정을 살핀 데 이어, 25일에는 친환경 탱크 및 항만 크레인 거점으로 육성 중인 HD현대에코비나의 생산 시설과 건설 현장을 직접 확인했다고 전해짐. 현장에서 정 회장은 파견 임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향후에도 현장 중심 경영을 통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할 방침이라고 알려짐.

VLGC newbuilding interest ticks up amid Middle East conflict fallout (TradeWinds)

<https://zrr.kr/xYqQEH>

중동 분쟁으로 인한 시장 불확실성 속에서도 미국발 LPG 수출 증가 기대감으로 초대형 가스 운반선 VLGC 신조 발주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됨. KSS해운은 HD현대 산하 조선소와 VLGC 3척에 대한 의향서 LOI를 체결했으며, TMS Cardiff Gas 등 글로벌 선사들도 파나마 운하 통과가 가능한 90,000cbm급 선박 발주를 검토 중이며 척당 선가는 약 1억 1,000만 달러 수준으로 전해짐. 현재 VLGC 수주 잔고가 세계 함대의 27%에 달해 과잉 공급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주들은 미국 LNG 프로젝트 확정 에 따른 LPG 물동량 증가와 2028년 잔여 인도 슬롯 확보를 위해 선제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고 알려짐.

Canada boasts of becoming 'energy superpower' to save Asian allies (Upstream)

<https://zrr.kr/TiCUws>

중동 호르무즈 해협의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캐나다 정부와 에너지 업계가 아시아 시장을 겨냥한 LNG 및 원유 수출 다변화에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됨. 휴스턴 'CERAWeek'에 참석한 캐나다 에너지 대표단은 미국 걸프만 대비 아시아까지의 짧은 운송 거리(도쿄 8일, 서울 10일) 등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고 전해짐. 현재 약 1,200만 톤 수준인 캐나다 서부 해안의 LNG 수출 능력을 건설 및 허가 단계를 포함해 5,000만 톤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Danielle Smith 앨버타 주지사는 중동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동맹국들의 에너지 안보를 위해 'Trans Mountain' 파이프라인 확장 등을 통한 원유 공급 확대 의지를 피력했다고 알려짐.

Santos temporarily shuts down flagship LNG project (Upstream)

<https://zrr.kr/IB4fpv>

호주 에너지 기업 Santos가 Barossa 가스전과 연결된 연간 370만 톤 규모의 Darwin LNG 프로젝트 가동을 일시 중단했다고 보도됨. 이번 중단은 Barossa 프로젝트의 핵심 설비인 BW Offshore 소유 FPSO 'BW Opal'호의 압축기 가스 씰 교체 및 파이프 보강 등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이며, 최종 완공 및 정상 가동 시점은 당초 예상보다 다소 지연된 2026년 2분기로 전망된다고 전해짐. 중동 분쟁으로 인한 QatarEnergy의 공급 차질과 맞물려 글로벌 LNG 수급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한국·일본·중국 등 동북아 주요국에 가스를 공급하는 호주의 이번 생산 중단이 시장에 미칠 영향이 주목받고 있다고 알려짐.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서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